



18년 만에 다시 받아본 〈아산의 향기〉



세월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8년 만에 〈아산의 향기〉를 받아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2005년 원불교 화곡교당에서 근무할 때 〈아산의 향기〉 가을호 ‘내 안의 참 평화’라는 칼럼에 글을 게재한 것이 〈아산의 향기〉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한 강물처럼 흘러 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당시 사진을 담당했던 작가가 장소를 세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3시간 가까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장소가 바뀌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계속 웃어달라는 사인을 보내며 나를 힘들게 했다. 문득 ‘이것이 진정 프로 정신이구나, 나는 과연 교화 현장에서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찍고, 찍고 또 찍는 사진작가를 떠올리며, 그때 배운 ‘프로 정신’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교역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정년퇴임하여 요즘 원불교 ‘원음방송’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그 당시 사진작가가 나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프로 정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불보살 성현들의 마음은 곧 정성이라고 하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산의 향기〉가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세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아산의 향기〉에 득하기를 염원한다.  글 **조원오** 원불교 원로원 교무

